

## II. 經濟 指標 포커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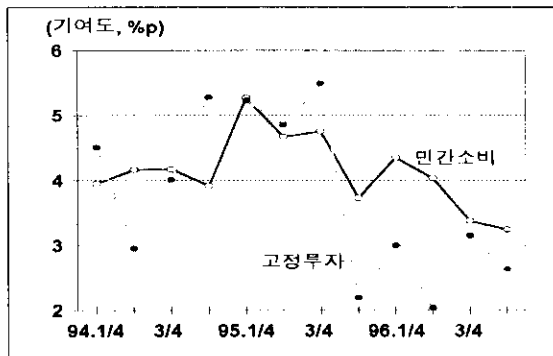
### 1. 內需 景氣 下降勢

- (動向) 投資 萎縮勢가 지속되는 가운데 7%대의 증가율로 景氣 急落을 일정정도 지탱해주던 소비마저 최근들어 크게 둔화되면서 內需가 급속히 鈍化되고 있음
- (內容) 收益性 低下와 勞動法, 連鎖不渡 등 여건 악화로 투자 위축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景氣 下落 局面의 持續과 고용 불안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萎縮되며 소비가 뚜렷이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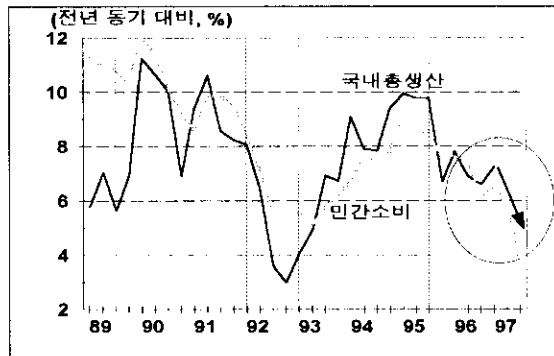
투자 위축세 지속  
과 소비의 큰 폭  
둔화로 내수 급속  
둔화

- (動向) 투자 위축세가 더욱 확대되고 7%대의 증가율을 유지하며 경기 급락을 지탱하던 소비도 최근들어 크게 둔화되면서 내수가 급속히 둔화
  - 95년에 11.7%, 8.3%씩 증가했던 고정투자, 민간소비가 96년에는 각각 7.1%, 6.9% 증가로 하락
  - 특히, 96년 상반기까지 7.5%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가 하반기 이후 6.3% 수준으로 크게 둔화됨
  - 이로 인해 경제 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가 96년 이후로 크게 감소되고 있음
  - 설비투자의 급격한 위축세로 고정투자의 기여도는 95년 말 이후로 3%p 이하에 머뭇
  -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96년 하반기 이후 3.4%p, 3.2%p로 급격한 감소세 지속
  - 더욱이 금년들어 소비, 투자 등 내수가 더욱 둔화되면서 경기 하락 속도가 매우 급격해짐

<내수의 성장 기여도 추이>



<경기 국면과 소비 증가율 추이>



- 한편 소비는 경기에 후행하며 경기 하강시 성장률 보다 완만한 하락세를 띄는 경향을 보여 온 반면,
  - 이번 하강기에는 96년 말부터 성장률 둔화보다 더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

수익성 저하와 경제 여건 악화로 투자 위축 심화, 경기 하락 지속과 고용 불안으로 소비 크게 위축

- (內容) 수익성 저하와 경제 여건 악화로 투자 위축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 하락 국면의 지속과 고용 불안으로 소비마저 크게 위축
  - 설비투자는 고비용 구조 지속과 재고 누증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노동법, 잇단 부도 등 여건 악화로 더욱 위축
    - 내수용 기계설비 출하가 최근 정체 상태를 보이고 기계류 수입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
    - 선행지표인 기계수주도 큰 폭의 감소세
  - 민간소비는 경기 하락 국면의 지속과 기업의 감량 경영에 따른 고용 불안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뚜렷이 둔화
    - 도소매판매는 1월에 12년만에 최저치인 1.4% 증가에 그치며 3%대 이하로 급락함
    -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올들어 감소세를 보이며 크게 위축
    - 특히, 96년에도 20%를 웃돌던 내수용 소비재 수입마저 감소세로 반전됨
  - 이러한 내수 경기 하강세는 상반기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성장률이 5%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경기 하강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(민 주 흥)

<내수 관련 지표 동향> (전년 동기 대비, %)

	1995	1996				1997		
		1/4	2/4	3/4	4/4	1월	2월	
도소매 판매액	7.8	8.3	7.0	6.4	6.0	6.9	1.4	3.3
내수용 소비재 출하	7.4	5.3	7.4	1.9	5.9	5.2	-3.2	-0.9
내수용 소비재 수입	30.3	29.2	23.5	20.1	26.1	24.5	6.3	-1.4
내수용 기계설비 출하	21.4	9.2	3.4	8.2	9.7	7.5	2.9	0.0
국내기계수주	15.8	9.7	22.5	9.2	15.7	14.3	-27.5	-5.6
기계류 수입액	27.0	16.0	12.9	10.1	10.2	12.2	-16.2	-3.0

2. 對先進國 輸出 不振勢

- (現況) 올 1/4분기 對先進국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15.3% 감소한 105.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
- (原因) 對先進국 수출 부진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과 함께 주요 경쟁국인 일본의 엔貨에 비해 원貨가 高평가되었기 때문임
- (展望) 2/4분기에는 반도체, 철강,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단가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對先進국 수출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96년 1/4분기  
對先進국 수출  
이 15.3% 감소

○ (現況) 올 1/4분기 對개도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.3% 증가한 137.7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對先進국 수출은 15.3% 감소한 105.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

- (對先進국 수출) 96년 1/4분기 對先進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.3% 감소한 105.0억 달러를 기록  
· 국가별로는 對미국(-22.8%), 對독일(-42.4%), 對일본(-9.7%) 수출이 부진하였고 對캐나다(15.5%), 對호주(13.0%) 수출은 호조를 보였음

- (對개도국 수출) 96년 1/4분기 對개도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.3% 증가한 137.7억 달러를 기록  
· 국가별로는 對중국(22.6%), 對인도네시아(18.2%)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對인도(-30.8%), 對싱가폴(-10.7%) 수출이 부진하였음

- 이러한 對先進국 수출 부진으로 인해 올 1/4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5.4% 감소한 298.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

○ (原因) 對先進국 수출 부진은 우리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 약화 요인과 함께 주요 경쟁국인 일본의 엔貨에 비해 원貨가 高평가되었기 때문임

- 반도체 수출은 수출 단가의 하락으로, 자동차 수출

주력 수출 품목  
의 단가 하락과  
엔저 현상이 對  
선진국 수출 부  
진의 원인

- 은 1~2월 중의 과업으로 부진세를 보였음
- 엔/달러 환율의 절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원/달러 환율의 절하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이 수출 경쟁력 하락을 초래 하였음
  - 엔/달러 환율이 96년말에서 96년 3월말까지 8.6% 절하된 반면에 원/달러 환율은 6.3% 절하되었음
  - 이같은 엔저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.4%가 감소하였음

2/4분기 대선진국  
수출은 다소 개선  
될 전망

- (展望) 97년 2/4분기에는 반도체, 철강,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단가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선진국 수출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
  - 반도체의 경우 16메가D램의 수출 단가가 97년 1월에는 5.5 달러로 떨어졌다가 97년 3월에는 11 달러까지 상승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임
  - 반도체 이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로 1월 0.7%, 2월 4.7%, 3월 5.4%로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
    - 특히 철강의 수출 증가율은 1월에는 -3.4%였으나 2월에는 16.6%로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제품도 1월의 86.2%에서 2월에는 109.7%로 호조를 보임
  - 對선진국 수입도 미국이 전년 동기 대비로 -10.4%, 일본은 -2.4% 등 대부분의 국가로부터의 수입 감소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대선진국 무역수지 적자 폭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

(임 병 수)